

<토의 I>

어떤 간호원

權 五 興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보
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감사)



복지국가를 지향 하는 세시대를 맞이하여 저 회 같은 오지 무의촌주민에게까지 편리한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대통령각하와 관계당국에 먼저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전주시에서 남원쪽으로 16km지 점에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마을로서 면소재지로부터 동쪽으로 8km 상거한 가파른 산지에 80여세대가 사는 비교적 영세한 마을입니다.

저는 이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권오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저희 부탁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고 보건진료원이 배치된 전후의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보건진료원에 관계된 몇가지 문제점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기 이전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리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부락에 진료소가 생기기 전에는 급한 환자가 생겨 전주시내까지 가려면 1시간이상이 걸렸고 밤중에는 더많은 시간이 걸려 때로는 다음날 아침까지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둘째는 치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병이 악화되기 이전에는 병원치료를 주저하다가 죽게끔된 순간에 병원에 가게되며 가족중에 한 사람이 입원하게되면 가산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사람들은 자기몸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일철이 되면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일손에 쫓겨 병원대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은 병을 점점 키우고 있었습니다.

넷째로는 민간요법이나 한방약과 비위생적인 처사입니다. 병을 크친다는 미위생적 처치가 병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다섯째 약국에서 구입한 약의 남용과 과용입니다. 주민들중에는 뇌신이나 노루모산·아스피린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었으며 심지어 각종 마이신을 종류의 구별없이 보약처럼 먹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섯째 보건의 무지였습니다. 결핵을 앓고 있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뽀뽀를 하며, 자기입에서 썩은 음식을 꺼내 손자입에 넣어주는 끔찍한 일도 예사로 있었고 주막집에서 결핵환자와 함께 앉아 술잔을 돌려 마시며 기침을 해도 예사로

● 미래간호교육을 위한 정책세미나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족계획 문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나 입산부의 관리와 분만간호의 각종 문제가 이웃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위급 환자가 생겼을때, 우선 먼저 손쉽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후송했다라면 좋았을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저희 마을에 있는 다리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다리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터져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는데 저는 피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만 했습니다. 어린이의 집에 갔으나 부모들은 틀에 나가고 없었으며 상처에 바를 단한 약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지나가는 승용차를 붙잡고 사정하여 시내병원에 겨우갔는데 출혈때문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날뻔 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위험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집 둘째 어린이가 며칠 기침을 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하여 기온환을 먹이고 어두운 밤에 아이를 업고나와 차를 기다렸으나 지나가는 몇대의 차는 손을 들어도 아랑곳 없이 지나가 버렸고 할수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는 차앞을 가로막아 겨우 트럭에 편승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에 도착하여 병원문을 두들겨도 쫓겨할 열어주지 않아 한참 만에야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의 가족들의 애담은 말할수 없었고 저는 왜 농촌에서 살게 됐는지 그렇게 후회스럽고 서글볼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무렵에 81년 11월 진료소가 설치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료소에 간호원이 온다기에 간호원이 무엇을 얼마나 알것인가 하는 생각과 여자라고 알잡아 보는 생각때문인지 주민들이 겨우 감기약이나 사러오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진료소는 매일 성시를 이루었고 진료원의 일손은 쉴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물론이고 이웃 12개 마을에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곧 바로 진료소에 먼저와서 진찰을 받고 병원에 가야 할 질병을 가려내

서 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설득하고 진료과목을 선별 지도해주어 병의 조기발견을 하게 되며 딱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없는 저희 농촌사람들이 이제는 병이 악화되기전에 미리미리 싼값으로 조기에 치료할수 있어 시내병원의 높은 문턱을 걱정안해도 되었고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할수 있으며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도 끝에도 생각못했던 조산원의 도움으로 분만도 마음놓고 받게 했습니다. 산모의 산전진찰과 산후의 간호도 너무나 고맙고 갓난아이의 간호도 호모했습니다.

농사일에 한가한 시간에는 진료소에는 부녀자들이 모여 허물없는 가운데 가족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진학이나 취업문제도 상담하게 되며 진료원이 더 바랄수 없는 마을의 「티더」로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네 어린이는 모두 진료원이 알아서 여러가지 예방접종을 차례로 빠짐없이 해주고 진료소에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의 건강관리 상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핵이 일다나 두서온가 계몽해 주고 예방법과 치료법을 지도해 주며 조기진단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양호교사가 없는 우리 관내의 학교에는 양호교사의 역할까지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해주는 간호원에 대한 저희들의 과거 인식은 간호원은 병원에서 주사나 놓아 주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원이 이제는 우리마을의 중추적 인물이 되어 주민 건강관리의 중심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료원이 마을의 각 가정 개인의 사정도 잘알고 있고 가족중에 한 사람만 몸이 불편해도 가족 전체에 미치는 건강관리 내용까지 지도해 주고 있어 병원에 가게되면 아픈 사람만 치료 받고 돌아오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간호원이 진료원으로 되었다는 점이 크게 호감이가는 이유는 가정의 보건 위생관리나 자녀교육의 주역을 맡고 있는 가정주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 있는 여성이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하고 또 보건위생의 실천을 주부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어 보건예방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들 농촌 사람은 도회지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소외감마저 느껴왔습니다만 이제는 생활근거지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건강을 보호받게 되었고 원할때에 손쉽게 그리고 짝 값으로 알찬 1차 진료를 받게 되어 모든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일찍 발견할 수 있어 우리 마을의 생활은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안정감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국의 무의촌이 빠짐없이 이러한 보건진료원을 배치 오지의 주민이 건강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 사업이 확산돼 나갈 때 부녀 새마을 사업 또한 충실한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또한가지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진료소가 갑자기 설치돼 마땅한 장소가 없어 마을 회관에 설치운영 하다보니 미흡아서 매우 불편했읍니다. 그래서 진료소 설치를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의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오는 11월 7일 군수님과 유지를 보시고 준공식을 갖을 예정입니다.

복지회관은 건평 45평의 2층 슬라브 건물로 아래층에는 진료실과 분만실 그리고 입원실을 마련했으며 2층에는 경로당과 도서관을 준비했읍니다. 이곳은 농번기에는 탁아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청소년 및 부인회의 교육장으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작은 농촌마을에서 현금 1천만원을 투자하고 노력동원 연인원 400명이 투입되는 공동사업을 이룬다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읍니다만 비저판은 흘러면서도 불평한마디 없이 전 주민이 참여한 것은 진료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승화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선진 복지마을의 내일이 눈앞에 보이는듯 합니다. 간호원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치될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읍니까.

전국의 간호원 여러분!

도시의 좋은 환경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싶으시겠지만 병원이 없는 농어촌에 투신하셔서 무지를 개화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한 후 충실한 열매를 맺는 부듯한 보람을 맛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폭풍이 지난 다음 태양은 더욱 찬란하게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 주민과 더불어 우리마을의 진료사업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간호원을 도울 것입니다.

관계당국에서도 농어촌에 투신할 수 있는 사명감이 투철한 간호원을 많이 배출하셔서 막아오는 선진 대한민국의 건강한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몇가지 진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료소에 전화를 가질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응급환자의 빠른 처치를 위해 기동력을 갖출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보건교육 및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시청각 시설과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유급직원을 배치하여 서류정리, 회의, 약품구입을 대행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킨후, 농번기에 탁아소 운영의 보모로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회의를 개최하는데 수고해 주신 대한간호협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의 의료부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해 주시는 관계 당국 여러분께 많은 농어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